

했다네. 그가 가진 지식이 벌써 그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어. 그 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유럽에서 여러 척의 배가 들어왔지만, 그중 비르지니에 관한 소식을 전해온 배는 단 한 척도 없었기에, 끝내 폴의 두려움은 더욱 커져만 갔다네.

이 불행한 젊은이는 온갖 혼란스런 빈뇌에 사로잡혀 종종 나를 보러 와서는, 내가 세상 경험이 많으니 거기에 비추어 자신의 불안을 확인하거나 그 불안을 떨쳐내고자 했어.

자네에게 말했다시피, 나는 여기서 1리의 반 정도 떨어진 곳, 긴산을 따라 흐르는 작은 강변에 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다네. 아내도, 자식도, 노예도 없이 나 홀로 평생을 보내 온 곳이지.

우리가 천생인연의 배필을 만난다는 귀한 행복이 아니 고서야, 그 다음으로 가장 불행이 덜한 삶의 형태는 어쩌면 혼자 사는 삶일 걸세. 인간을 향한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은 누구나 고독을 추구하게 마련이지. 자신들이 만든 상이든, 도덕이든, 정부든 간에 그로 인해 불행해진 모든 사람들이, 고독과 독신에 전적으로 삶을 바치는 시민계급을 숭하게 만들어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야. 쇠퇴기의 이집트인들도, 동로마제국 시절 그리스인들도 그랬지만, 또한 오늘날의 인도인들이나, 중국인들, 현대 그리스인들, 이탈리아인들, 그리고 유럽 동부 및 남부의 대부분 민